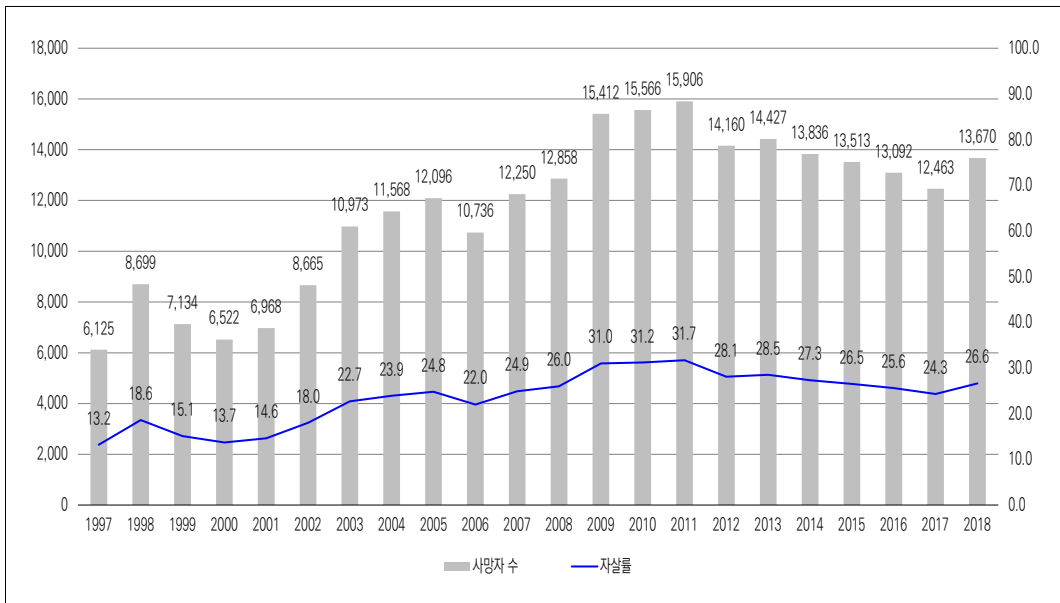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및 자살자 현황

-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7년 13.2명에서 2018년 26.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살자 수 또한 6,125명에서 13,670명으로 증가하였음.
- 자살률은 2011년 역대 최대였으며,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2018년 다시 상승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자살률 추이

(단위 : 명, %)



주 : 자살률은 연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 인구²) × 100,000)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1) 자살률은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수직 상승한 뒤,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2) 연앙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인구를 말함.

- 자살자가 가장 높았던 2011년과 비교하여 2018년 경찰청 추산³⁾ 직업별·연령별 자살자 수는 총 2,465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8년 무직자가 6,331명으로(2011년 7,912명) 가장 많았음.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4,325명(2011년 5,151명), 무직자 중 61세 이상 3,094명(2011년 3,722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 2018년 직업별로는 자살자 수 13,216명 중 무직자가 6,331명(47.90%)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3,347명(25.33%), 자영업자 1,030명(7.79%)이었음.
 - 연령별로는 61세 이상 4,325명(32.73%), 51~60세 2,696명(20.40%), 41~50세 2,616명(19.79%)으로 고령일수록 자살자 수가 많았음.
 - 자살한 무직자 전체 6,331명 중 61세 이상이 3,094명(48.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1~60세 1,098명(17.34%), 41~50세 856명(13.52%), 31~40세 717명(11.33%), 21~30세 488명(7.71%), 20세 미만 78명(1.23%)이었으므로 주로 무직의 고령자일수록 자살의 비중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동기별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는 2011년 4,773명(30.44%), 2018년 4,171명(31.56%)으로 602명 감소하였으나, 경제생활 문제는 2011년 2,921명(18.63%)에서 2018년 3,390명(25.65%)으로 469명 증가하였음.
 - 자살은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노인실태조사에서 고령자(65세 이상)의 자살 생각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는 점⁴⁾과 경찰청 자살자 수 자료에서 고령의 무직자 비율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실제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제시된 수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

3) 통계청의 자살로 인한 사망 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통계법에 따라 국민(해외사망자 포함)이 신고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며, 경찰청은 신고된 변사사건에 대해 경찰범죄통계 규칙에 따라 작성됨. 등록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 해경, 해외사망)이 통계청 집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자 수는 차이가 발생함(통계청, 2010. 8. 26).

4)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로는 1. 경제적 어려움(27.7%), 2. 건강(27.6%), 3. 부부자녀친구갈등 및 단절(18.6%) 순이었음(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표 1〉 우리나라 직업별·연령별 자살자 비교(2011년, 2018년)

(단위: 명, %)

		2011년		2018년		자살자 수 차이
		자살자 수	비율	자살자 수	비율	
전 체		15,681	100.00	13,216	100.00	-2,465
직 업 별	농, 임, 수산업	856	5.46	316	2.39	-540
	자영업	1,202	7.67	1,030	7.79	-172
	전문직	231	1.47	252	1.91	21
	공무원	145	0.92	84	0.64	-61
	일반봉급자	995	6.35	890	6.73	-105
	유형업종사자	76	0.48	27	0.20	-49
	일용노동자	427	2.72	224	1.69	-203
	기타피고용자	999	6.37	715	5.41	-284
	무직자	7,912	50.46	6,331	47.90	-1,581
	기타	2,832	18.06	3,347	25.33	515
연 령 별	20세 미만	433	2.76	371	2.81	-62
	21~30세	1,730	11.03	1,196	9.05	-534
	31~40세	2,518	16.06	2,005	15.17	-513
	41~50세	3,059	19.51	2,616	19.79	-443
	51~60세	2,786	17.77	2,696	20.40	-90
	61세 이상	5,151	32.85	4,325	32.73	-826
	미상	4	0.03	7	0.05	3

주: 1) 비율은 전체 자살자 수 대비 직업별 비중임.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우리나라 동기별 및 성별 자살자 비교(2011년, 2018년)

(단위 : 명, %)

		2011년			2018년			자살자 수 차이
		성별	자살자 수	비율	성별	자살자 수	비율	
전 체	전체		15,681	100.00	전체	13,216	100.00	-2,465
	남		10,728	68.41	남	9,518	72.02	-1,210
	여		4,951	31.57	여	3,690	27.92	-1,261
	불상		2	0.01	불상	8	0.06	6
동기 별	가정문제	남	870	5.55	남	701	5.30	-169
		여	490	3.12	여	340	2.57	-150
		불상	0	0.00	불상	1	0.01	1
		소계	1,360	8.67	소계	1,042	7.88	-318
	경제생활문제	남	2,346	14.96	남	2,927	22.15	581
		여	575	3.67	여	463	3.50	-112
		불상	0	0.00	불상	0	0.00	0
		소계	2,921	18.63	소계	3,390	25.65	469
	육체적 질병문제	남	2,230	14.22	남	1,811	13.70	-419
		여	943	6.01	여	618	4.68	-325
		불상	0	0.00	불상	0	0.00	0
		소계	3,173	20.23	소계	2,429	18.38	-744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남	2,722	17.36	남	2,392	18.10	-330
		여	2,051	13.08	여	1,778	13.45	-273
		불상	0	0.00	불상	1	0.01	1
		소계	4,773	30.44	소계	4,171	31.56	-602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남	804	5.13	남	427	3.23	-377
		여	125	0.80	여	60	0.45	-65
		불상	0	0.00	불상	0	0.00	0
		소계	929	5.92	소계	487	3.68	-442
	기타	남	1,756	11.20	남	1,260	9.53	-496
		여	767	4.89	여	431	3.26	-336
		불상	2	0.01	불상	6	0.05	4
		소계	2,525	16.10	소계	1,697	12.84	-828

주 : 1) ()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산업별, 규모별 비중임.

2) 기타의 동기에는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 미상, 기타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